

2023년 제8회 Reseña, 최고의 서평 대회 심사평

심사평

응모된 40여 편의 서평을 읽으며 즐거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선정된 책들의 분야와 난이도가 제각각이어서 제출된 서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출된 글의 완성도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이러한 응모전 심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자신이 읽은 책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또 읽고 난 후 생각하게 된 것을 자신의 문장으로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가에서 결정된다. 짧은 서평에서 구구하게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나 계기 등을 말할 필요까지는 없고, 또 주최측에 대한 감사의 표시 따위도 삼가야 할 내용이다. 물론 제출된 글 가운데는 긴 분량의 것들도 간혹 있었으나 책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명쾌히 드러내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읽는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를 자신의 문장으로 잘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정확한 생각에 이르게 된다. 막연하게 아는 내용, 어디선가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은 제 앞이 될 수 없다. 제 앞이 될 수 없는 글이 좋은 글이 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서평 대회에 글을 내어본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해보았으니 제 생각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해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 수상자에게는 축하를,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계속 열심히 읽고 생각하라는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응모작들의 수준이나 참여의 확대를 위해 도서관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2023. 10. 26.

심사위원 일동(대표 : 전병준 교수)